

G20 서울 정상회의: 평가와 향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 동 휘

12-13-2010

2010년 11월 11~12일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 프레임워크,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 부문 개혁, 보호주의 저지 및 무역·투자 증진 등 기존 의제들(legacy issues), ▲개발 지원, 글로벌 금융 안전망 등의 새로운 의제들(newly focused issues), 그리고 ▲에너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 등의 기타 사안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액션플랜”을 채택하고, IMF 쿼터의 100% 증액, 6% 이상의 쿼터를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합의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자본·유동성 규제 개혁안인 Basel III를 채택하였다. 한편 ‘Korea Initiative’로서,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선·후진 국가간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 서울 정상회의의 평가

G20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비록 무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 등 향후 과제들을 안고는 있으나, 서울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가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선언된 대로, 국제 경제질서 관리를 위한 최상위 협의체로 변환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 확대 가능성을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미완성의 성공’(unfinished success)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성숙된 시민의식, 대통령의 리더십 및 유관자들의 공헌 등이 어우러져,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회의 준비와 소기의 합의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한국을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할 규칙 제정자(rule setter)의 일원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취’(historic achievement)를 거두었다고 자평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국제정치경제적 성과

서울 정상회의는 개별 국가 단위의 환율 조정 문제를 세계적 규모의 불균형 문제 속에서 파악하고, 이를 경상수지 규모의 조정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소위 ‘환율 전쟁’에서 ‘휴전’을 이끌어 내고, 궁극적인 ‘평화 협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비록 제반 의제들에 대한 합의가 향후 좀 더 구체화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는 있으나, 기존 의제들(legacy issues)과 새로운 의제들(newly focused issues)의 대부분이 별다른 논쟁 없이 순조로이 결론 지워졌다는 점은, G20의 협의체로서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는 그 준비 과정에서 비회원국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한 'Business Summit' 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outreach 활동을 원만히 수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은 향후 회의에서 더욱 더 체계화되어 G20 프로세스의 부분들로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울 정상회의는 G20의 향후 발전과 직접 관련된 주요 제도화의 문제들(가령, 상설 사무국의 설치)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향후 전망

금번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으로부터 신흥국으로의 권력이동(power shift)이라는 국제정치경제적 영향력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자연히 중장기적으로 기존 힘의 분포 위에서 구축되었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국제 질서의 관리 기체로서의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가령, G20이 네트워크의 허브(hub)로서 기존 IMF 등 국제경제기구를 적극 활용하면서 상설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데에서도 관찰되듯이, 향후 이러한 움직임은 G-X류의 체제와 UN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와의 상관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다자 차원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문제가 세계적 차원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라는 좀 더 포괄적인 틀 안에서 다루어지면서 참여한 국가간 논쟁을 우회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불균형 문제의 기저에는 기축통화 문제를 포함하는 국제 통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가 이 문제를 2011년 회의의 주요 의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 통화 문제는 G20의 최우선 의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 문제가 미국의 국제정치경제 상의 위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G20의 발전 자체에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인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0년 8월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G20 사무국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로써 2011년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국 설치 문제를 포함한 G20의 제도적 개선 문제들이 공식 의제로 다루어지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